

보도자료		 The Media Network for Justice www.medianetwork.kr	
보도요청: 2020.3.23.(월) 09:30 부터			
담당	미디어연대		
연락처	(02) 741-7662		FAX (02) 741-7663
E-mail	mirifica@naver.com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 2020년 12주차 발표 (3.23일)

“공영방송 KBS 왜곡된 여론조사로 총선 개입”

- '무조건 여당 1위'로 만든 KBS의 작위적인 여론조사 보도 -

‘우한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성과 과장한 靑, 받아쓰기한 KBS

‘코로나 밀어내고 여권 후보 1위 여론조사 보도한 MBC ‘정권 나팔수’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선 '윤리 실종 행태'까지 -

“우한 코로나 종교차별로 위헌, ‘윤석열 때리기’ 친문방송 JTBC”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민심 악화를 막고 정권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공영방송과 언론이 4·15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왜곡된 총선 여론조사를 통한 사실상의 여론조작에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는 유리하게 야권에는 불리하게 작위적으로 분석해 보도하는 행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는 23일 지상파, 종편 등 주요 방송과 공영언론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3인의 대표와 박한명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3월 15일(일)부터 21일(토)까지 7일간 보도 내용을 분석한 「팩트체크+ 12주차 보고서」를 이같이 발표했다.

12주차 모니터 결과 KBS는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난 15일자 총선여론조사 보도에서 노골적인 여론조작 형태를 드러냈다.

KBS는 원주갑 선거구에서 3파전을 보인(지역 유력일간지 강원일보 3월 16일자) 이광재, 박정하, 권성중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했는데 무소속 권성중 후보를 제외한 이광재, 박정하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광재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를 끌어냈다. 여당인 민주당을 탈당해 출마하는 권 후보는 지난 총

선에서 수백표의 간발의 차로 낙선한 유력주자이다.

반대로 인천 동구미추홀구를 선거구에서는 야당(미래통합당)을 탈당해 출마하는 유력 무소속 후보를 포함시키는 이중 기준을 적용했다. 민주당 남영희 전 행정관과 통합당 안상수 후보 외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포함시켰다.

KBS는 이같은 작위적인 조사대상 후보 선정으로 더불어민주당 표는 분산되지 않고 미래통합당은 표가 분산되도록 해 두 곳 모두 여당 후보가 1위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보도했다.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라는 의혹을 벗기 어렵다.

KBS는 편향된 조사 샘플도 사용했다. 사실상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울 광진구갑 선거구(민주 고민정 대 통합 오세훈)과 동작구를 선거구(민주 이수진 대 통합 나경원)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지지정당 분포율을 여당 50%(범여 60%) 안팎으로, 제1야당은 20%(야권성향 30%)대로 구성한 샘플로 실시해 모두 여당 후보가 1위로 나오는 결과를 도출해 보도했다. (자료 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현황. 이하 같음)

광진구갑 조사대상자의 지지정당 응답률은 민주당 54.7%, 통합당 23.3%로 범여(민주+정의)로는 62.7%, 야권성향(통합+국민) 29.2%였으며, 동작구에서는 민주 45.5% (범여 55.7%), 통합 29.6%(야권성향 35.3%)였다.

지난 2017년 대선 정당별 득표율은 민주(문재인) 41.1%, 통합(홍준표) 24%, 국민(안철수) 21.4%, 통합 합류 바른(유승민) 6.8%, 정의(심상정) 6.2%로 범여는 47.3%, 범야는 52.2%였음에 비교할 때 상당히 왜곡 내지는 편향된 조사샘플이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KBS·한국일보의 왜곡된 여론조사를 타 언론사들이 그대로 인용보도하고 있어 여론 왜곡의 확대 재생산이란 심각성이 제기된다.

KBS는 또 3월 17일 청와대발 '코로나19 진단키트, UAE에 첫 수출'이란 홍보선전 기사를 뉴스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이날 오후 다른 매체에서 진단키트가 아닌 채취키트라는 사실을 단독보도하면서 청와대 거짓말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 해명을 포함한 종합뉴스로 정정해 보도했다.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따라 보도하는 '청와대 나팔수'를 인증한 셈이다.

MBC <뉴스데스크>도 선거전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3.16일 여권 후보가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코로나 기사를 밀어내면서까지 톱기사로 2건 연속

보도하는 적나라한 정권 나팔수적 행태를 노출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관련 사건 기사는 1주일 내내 주요기사(코로나 기사 제외 한 첫 기사)로 6건이나 연속 보도한 반면에, 재개된 조국 재판 기사와 조국 딸 인턴 비리 등으로 사임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관련기사는 단 2건에다가 일방적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도하는 편파성을 보였다.

더구나 MBC는 윤 총장 장모 관련 기사는 사흘 전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기사인데도 버젓이 단독이라 명기하는 보도 윤리성 실종 행태까지 보였다.

MBC는 현 정권 실세 연루설들까지 나오는 단군 이래 최대인 1조원대 금융사기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각 신문 방송들이 긴급 주요기사로 보도하고 있는데도 일체 보도하지 않는 정권 친위대적 행태를 보였다.

종편 JTBC <뉴스룸>의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과 이를 통한 정부의 코로나 차단 실패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행태를 계속했다.

뉴스룸은 3월 15일자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지정…감염병 첫 사례>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대구 신천지 교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라며 코로나 확산 책임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는 사실상의 국민 차별적 선동을 했다.

신천지 교인이 바이러스를 확산하는데 일정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코로나 발병은 결국 외부요인(중국)에서 온 것이고 신천지 신도도 정부가 돌봐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에서 <헌법> 제11조(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반이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 제29조 사회통합, 제32조 신앙의 자유 존중) 위반에 해당한다.

JTBC는 또 친문, 친조국 여론세력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은행잔고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흘간 집중 과잉보도하면서 친문·친조국 방송임을 드러냈다. (끝)

(후첨 : 팩트체크+ 12주차 보고서)

「팩트체크+ 12주차 보고서」

차 례

I. 문재인 개인방송으로 전락한 KBS

1. 대통령 선전기사 남발·여야 차별보도
2. 무검증 청와대발 ‘받아쓰기’ 심각

II. 여론 왜곡한 KBS 총선 여론조사 보도

1. 이중 기준 적용 여론 왜곡 팩트체크
2. 구체적 규정 위반 사항

III. ‘여당 유리하게’ KBS 여론조사 심층분석

1. 조사 샘플의 왜곡성 : 여권 응답자 비율 과다

IV. 특정 진영에 선 MBC, 무너진

‘공영성·공정성’

1. MBC <뉴스데스크> 정치 편파 기사들

V. 文 정권 수호의 화신 JTBC

1. 종교차별 선동한 뉴스룸
2. ‘친문분색’ 노골화, ‘윤석열 때리기’ 과잉보도

I. 문재인 개인방송으로 전락한 KBS

1. 문 대통령 선전 기사 남발하는 KBS

- ▶ ‘코로나19’ 확산 우려 문 대통령 “확고한 안정세, 수도권 방역 성공에 달려”(3.1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3059>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수도권 방역 성공에 달렸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제 중대본’ 구성한 文 “추경은 시작”…파격 대책 예고(3.1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3988>

○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구성됩니다. 당장 모레(19일) 첫 회의가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파격 대책을 예고했는데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文 “연대·협력해 달라”…‘위기극복’ 한목소리 속 이견도(3.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4945>

○ 선거 앞 둔 시점에서 문재인 개인 방송 계속, 야당 대표는 폼하만 계속.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세균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실종이지만, 문 대통령만 월~금까지 등장. 결론적으로 KBS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 방송이란 비판을 면치 못했다.

2. ‘선거 운동’과 ‘정책 설명’ 구분하기 힘든 보도

▶ ‘코로나19’ 확산 우려 文 “국민 삶 무너지는 것 막겠다”…50조 원 ‘서민 금융’(3.1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5863>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19일) 모두 50조 원 들여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내수부터 먼저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취약계층’과 ‘속도’를 강조했는데요.”(3.19)

▶ ‘코로나19’ 확산 우려 文 “예배 열겠다는 교회들 걱정…지자체 조치지지”(3.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6735>

3. 청와대 뉴스까지 덧칠

▶ ‘코로나19’ 확산 우려 靑, 재난관리기금 ‘빚장’ 풀어 지자체 ‘재난소득’ 뒷받침
(3.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6728>

4. 이낙연 종로 후보까지

▶ ‘코로나19’ 확산 우려 靑 “전 국민 지급도 논의”…비상경제회의서 결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4948>

▶ 21대 국회의원 선거 한선교 사퇴 “가소로운 부패 권력”…이낙연 “민망하다”(3.1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5929>

○ “[이낙연/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 ‘지자체들이 거기에 따른 부담 생긴다면 우리가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3.18)

5. 황교안 대표는 ‘펼하’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매너’ 부각

○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공들였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선대위원장 영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 황 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사퇴 사흘 만에 최고위원회가 서울 강남 을 공천을 취소했고,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3.16)

▶ 21대 국회의원 선거 ‘김종인 선대위’ 불발…다시 시험대 오른 황교안 리더십
(3.1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3079>

○ 이낙연 종로 국회의원 후보자와 황교안 후보자의 보도 내용을 보면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선대위원장을 마음껏 띄운다. 그러나 황교안 종로 후보는 싸움질하는 것만 집중 보도한다. KBS는 코드 방송을 넘어, 편파방송을 시도한다.

- 관련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루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여타 이슈에 대한 KBS <뉴스9> 시각

▶ ‘코로나19’ 확산 우려 “수도권 또 집단 감염…은혜의강 교회 신도 41명 확진”(관련 기사 5/30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3053>

○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뉴스9>, 먼저 우려했던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남 은혜의강 교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16일)만 마흔 한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난 1일과 8일 신도 130여명이 참석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35평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감염 예방 수칙은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이희영/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 "예배 이격거리를 지킬 수 없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130명 정도가 예배를 받는데 2m를 지킬 수가 없는 곳이죠."(3.16)

▶ ‘코로나19’ 확산 우려. 전광훈 교회 ‘다닥다닥’ 모여 매일 예배…부침개 나눠 먹기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7095>

○ 또 교회 비판. KBS가 공산국가가 아니면, 종교의 자유 영역까지 침범할 필요가 없다. 전광훈 목사 교회를 폄하하는 이유를 모르는 국민이 없다. 청와대는 대구 탕, 인천지 탕, 요양병원 탕, 개신교 탕 등. KBS는 앵무새처럼 이젠 종교 탕에 앞장선다. 종교 자유가 없으면 언론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KBS가 인식해야 한다.

-관련 규정 :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 심각(유사 기사 4/29건)

▶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잘 모르겠어요”…깜깜이 공약 정당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4014>

○ “유권자 판단을 도울 공약마저 소홀히 다뤄지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호남 기반 3당이 합당해 몸집을 키운 민생당. 원내 3당의 총선 공약,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었습니다. [박주현/민생당 공동대표 : 공약을 결정하는 절차는 제가 모르고요. 공약의 초안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 있습니다.]

통합당의 비례 전담 정당인 미래한국당. 선관위 제출한 공약,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

아볼 수 없습니다. [미래한국당 관계자/음성변조 :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올라갈 겁니다. (언제쯤요?) 그건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례 전담 정당의 공약은 곧 그 정당 후보 공약이 됩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운동본부 : 이걸 백지 수표를 위임해달라는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굉장히 오만한 처사라고 봅니다.“(3.17)

8. 정치 뉴스 제목 자체가 편파적, 민주당은 ‘온건’ 야당 관련 ‘협약’

▶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후보 떠나보낸 민주당…공관위원장도 검증도 민주(3.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6737>

▶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매당’ 공관위원장도 갈아치운 통합당…“황교안 대표 요구”(3.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6738>

9. 무검증 청와대발 받아쓰기 심각한 KBS

○ KBS는 3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넘어 청와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뉴스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靑 "코로나19 진단키트, UAE에 첫 수출"... 국제 공조 첫 결과물>이란 제목으로 청와대가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5만 천 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긴급 수출했다고 밝힌 내용이다. 그러다 같은 날 오후 8시가 넘어 일부 내용을 추가해 <(종합) 靑 "코로나19 진단키트, UAE에 첫 수출"..'수송용기' 주장에 "키트 맞다">는 제목으로 종합기사로 올렸다. 첫 기사는 청와대가 진단키트 수출 성과를 올렸다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인데, 마치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인식이 됐고, 정부의 큰 성과로 인식됐다. 그러나 나중 전자신문에서 오후 5시 49분경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진단(검사)키트가 아닌 채취키트라고 단독 보도했고, 청와대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자 강민석 청 대변인은 진단키트가 아니라, 채취키트 2개가 있는데 수출한 것은 채취키트였다고 정정했다. 청와대가 정정을 하자 KBS는 다시 청와대의 발표 그대로 따라 기사를 채취키트로 정정했다.” 그렇다면 KBS는 청와대의 나팔수임이 틀림이 없다. 출입처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KBS는 출입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 관련규정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9조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II. KBS 총선 여론조사 보도, 여론 왜곡 우려

1. 이중 기준 적용 여론 왜곡 팩트체크

- ◇ 3월 15일 KBS가 한국일보와 공동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총선 여론조사 보도에서 작위적 기준 적용으로 왜곡 소지가 다분
- ◇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영향력 있는 무소속 후보(원주갑)는 제외하고 여론조사한 반면,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한 영향력 있는 무소속 후보(인천미추홀구을)은 포함하여 여론조사하는 이중 기준의 문제 발생
- ◇ 여야 관심 후보 출마지 중 무소속 출마로 표가 분산될 두 곳의 여론조사에서 임의적으로 한 곳은 포함시키고 다른 한 곳은 제외시켜 모두 여당 후보가 1위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 보도
- ◇ 문제가 있는 KBS·한국일보 여론조사결과를 타 언론사들이 그대로 인용해서 또 보도하고 있어 여론 왜곡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어

● 조사대상 후보의 작위적 선정

: 무소속 출마로 3파전이 유력한 두 곳을 여론 조사하면서 한 곳은 무소속 후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한 곳은 포함시키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두 곳 모두 여권 후보가 1위로 나오도록 결과 도출 보도.

<1> 강원 원주갑 선거구

- 조사대상 후보 : 2명 (유력한 여권 무소속 후보 제외)
- 조사결과 : 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지사 43.2%, 통합당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25.8%.
- 관련 보도(조사결과 발표일인 3.15일자)
-연합뉴스: “이 전 지사 출마로 4년간 표밭을 갈아 온 권성중 전 원주갑 지역위원장이 탈당해 무소속 출마에 나섰다. 권 예비후보가 완주할 경우 민주당 표는 분산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권 예비후보가 김기선 의원에게 134표 차로 석패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유력일간 강원일보 “원주갑 선거구는 3파전으로 치러질 것”이라 전망 보도.

<2>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

- 조사대상 후보 : 3명 (유력한 야권 무소속 후보 포함)
- 조사결과 : 민주당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 32.4%, 통합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 12.0%, 무소속 윤상현 현 의원 28.9%.

- KBS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전, 강원 원주 갑,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43.2% 지지를 얻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정하 (25.8%)후보를 앞섰다. 실제 당선 가능성도 이 전 지사가 높았다.”고 리포트 했다(3.15).

▶ [여론조사]②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2227>



○ 그런데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가 전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위원장인 무소속 권성중 후보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다. 이 지역 유력일간지인 강원일보(3월 16일 자) 역시 원주갑 선거구가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보도가 중립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광재, 박정하, 권성중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권성중 후보를 제외하고 이광재, 박정하 후보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광재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를 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하다.

○ 더욱 이상한 점은 같은 여론조사인데도 인천 동구미추홀구를 선거구의 경우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하여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사실이다. KBS는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인천 동구미추홀을, 민주당 남영희 전 행정관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접전, 통합당 안상수 의원은 3위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두 후보간 접전 양상이었다. 이 지역에선 공천에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다.”고 리포트 했다(3.15).

▶ [여론조사]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2226>



○ 문제가 있다. KBS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영향력 있는 후보는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한 영향력 있는 후보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가 분산되고 있지 않고, 미래통합당은 표가 분산되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KBS·한국일보가 의뢰한 이번 총선 여론조사는 유권자인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유권자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우려가 크다(2020.03.16. KBS노조 성명 “KBS 총선 여론조사 대상 후보 왜 뺐나?” 참조).

○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KBS·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TV조선, JTBC, 채널A 등 타 언론사들이 그대로 인용해서 또 보도하고 있어 여론 왜곡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 TV조선은 “서울 광진구는 조사마다 결과가 다를 정도로 접전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고민정 후보가 46.1%, 오세훈 후보가 42%로 오차 범위 안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선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리포트 했다(3.14).

▶ '총선 D-32' 여론조사로 미리 본 격전지 민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4/2020031490106.html

- JTBC는 “대통령의 입과 전 서울시장에 맞붙는 광진을, 여론조사기관 두 곳에서 거의 같은 시기 조사했는데 한곳의 발표에선 고민정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7.7%p 앞서는 걸로 나왔다(KBS·한국일보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인용 보도).”고 리포트 했다(3.16).

▶ 고민정 vs 오세훈, 이수진 vs 나경원…여론조사 판세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0374&pDate=20200316

- 채널A는 “KBS·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이수진 후보 37%, 나경원 후보 33.4%로 나타났다.”고 리포트 했다(3.16).

▶ 30일 남은 서울 민심은?…접전 속 민주당 초반 우세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93848

● 여론조사 결과 보도의 경우, 기사 자체는 <선거방송심의회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었다. 그러나 별도로 공개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응답 대상이 스스로 밝힌 정치적 성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기존 선거 지지율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응답자 중 미래통합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론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도 “KBS·한국리서치 총선기획조사에서 1차부터 대통령 지지

울과 정당지지율 등의 여론조사 표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상당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 똑 같은 방식으로 ‘총선기획조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2.27).

▶ [여론&정치] 여론조사 표본은 입맛대로?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6/2020022603938.html

○ 왜곡된 여론조사 보도는 여론조작에 해당된다. 여론조작은 국민들의 선택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참고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①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여당에 편향된 조사샘플’ KBS 여론조사 심층분석

● 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관심지(서울 광진구갑 고민정:오세훈,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나경원)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지지정당 분포율을 여당은 50%(범여 60%) 안팎으로, 제1야당은 20%(야권성향 30%)대로만 구성한 왜곡된 샘플로 실시해 모두 여당 후보가 1위로 나오는 결과를 도출해 보도

1. 조사 샘플의 편향

○ 보도 기사

<21대 국회의원 선거> (3.15)

[여론조사]① 고민정 앞서…수도권 접전

[여론조사]② 김부겸·주호영 오차 범위…비례투표 미정 30%

(조사의뢰기관 : 한국리서치)

○ 조사 샘플의 사실상 왜곡 : 여권 응답자의 과다 반영

<1> 서울 광진구를 선거구

-조사 대상자수(가중값 적용 사례수) : 500명

-무응답(없음/모름 포함) 제외수 : 391명

○ 지지정당(무응답 제외) 응답률

: 민주당 214명(54.7%), 통합당 91명(23.3%)

*민주+정의 245명(62.7%), 통합+국민 114명(29.2%)

○ 2017년 대선 후보별 득표율

: 문재인(민주) 41.1%, 홍준표(현 통합) 24%, 안철수(국민) 21.4%, 유승민(바른) 6.8%, 심상정(정의) 6.2%

*문재인+심상정 47.3%, 홍준표+안철수+유승민 52.2%

○ 여권 지지자를 60% 이상으로 구성한 왜곡 샘플에 의해 조사한 결과

: 고민정(민주) 43.3%, 오세훈(통합) 32.3%

<2> 서울 동작구를 선거구

-조사 대상자수(가중값 적용 사례수) : 500명

-무응답(없음/모름 포함) 제외수 : 422명

○ 지지정당(무응답 제외) 응답률

: 민주당 192명(45.5%), 통합당 125명(29.6%)

*민주+정의 235명(55.7%), 통합+국민 149명(35.3%)

○ 2017년 대선 후보별 득표율

: 문재인(민주) 41.1%, 홍준표(현 통합) 24%, 안철수(국민) 21.4%, 유승민(바른) 6.8%, 심상정(정의) 6.2%

*문재인+심상정 47.3%, 홍준표+안철수+유승민 52.2%

○ 범여 지지자는 55%로, 야권성 지지자는 35%로 편향되게 구성된 샘플에 의한 조사 결과

: 이수진(민주) 37.0%, 나경원(통합) 33.4%

Ⅳ. 특정 진영에 선 MBC, 무너진 '공영성·공정성'

● MBC는 공공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보도를 특정 경영·보도진의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적 편파성으로 마구 재단하는가? 누구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는가?

○ 선거전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3.16일 여권 후보가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코로나 기사를 밀어내면서까지 톱기사로 2건 연속보도하는 적나라한 정권 나팔수적 행태를 노출함.

○ “입국자 전원 '특별 관리'…봉쇄는 안 한다(3.17)” 보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후약방문’ 행태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음.

○ 윤석열 총장 장모 관련 기사는 1주일 내내 주요기사(코로나 기사 제외한 첫 기사)로 6건이나 보도한 반면에, 재개된 조국 재판 기사와 조국 딸 인턴 비리 등으로 사임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관련기사는 단 2건에다가 일방적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시각으로 보도.

○ 더구나 윤 총장 장모 기사는 사흘전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기사인데 버젓이 단독이라 명기하는 보도 윤리성 실종 행태도 보임.

○ 반면에 단군 이래 최대인 라임자산운용의 1조원대 금융사기 사건이 터지고 현 정권 실제 연루설들까지 나와 각 신문 방송들이 긴급 주요기사로 보도하고 있는데 일체 보도하지 않음.

○ 3.20일 부동산투기 혐의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여권 비례정당 합류에 대해 비판 없이 끼워넣기로 물타기 보도.

○ 여야 비례정당 문제에서 더욱 악성인 위선적 여당 비례정당 보도는 형식적으로 뒤에다 붙이고, 야당 쪽 논란에 방점을 두고 비판적으로 보도.

● MBC <뉴스데스크> 정치 편파적 기사들

[3.20] 17건 (스포츠, 날씨 기사 제외. 이하 같음)

(1)~(3) 코로나 기사

(4) "검찰, 윤총장 장모에 대해선 일절 안 물어"

☞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보도 5일째 연속 코로나 소식 다음의 첫 주요기사로 집중 보도.

(5) '조국 재판' 시작... "검찰의 일방적 주장"

☞ 조국 재판 기사를 윤총장 장모 의혹 기사 뒤에 붙여 몰타기하면서 검찰 비판에 중점.

(6) 치열한 공방 예고... 눈여겨볼 쟁점은?

(7)~(14) 코로나 기사

(15) 여야 비례정당 '여진'... 김의겸 열린민주당 합류

☞ 부동산투기 혐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비판 없이 끼워넣기로 몰타기 보도.

(16) 법은 '민주적 공천'... 현실은 '대놓고 개입'

☞ 더욱 악성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문제는 형식적으로 뒤에다 붙이고, 방점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논란에 두고 비판적 보도.

[3.19] 28건

(1)~(6) 코로나 보도

(7) [단독] 녀 달 만에 전화한 검찰... "사건 종결합니다"

(8) [단독] "경찰로 넘기겠다" 제안도... 동업자는 오늘 조사

☞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관련보도 4일 연속 코로나 다음의 첫 주요 기사로 보도.

[3.18] 29건

(1)~(11) 코로나 보도

(12) '윤 총장 장모' 안 나타나... 경찰이 수사 '속도'

☞ 코로나 소식 다음의 일반기사 첫 보도로 사흘째 연속 강조 보도.

[3.17] 27건

(1) '코로나 추경'... 대구·경북 포함 3조 원 추가 지원

(2) 입국자 전원 '특별 관리'... 봉쇄는 안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사후약방문' 행태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없어

(3)~(12) 코로나 보도 계속.

(13) '윤 총장 장모 동업자' 조사 불발... 2주 만에 수사 될까

☞ 코로나 소식 다음의 일반기사 첫 보도로 강조. 이틀째 연속 보도.

(18) 비례연합정당 '개문발차'... 연합 공천 주도권 다툼

☞ 의석을 상당수 양보해야 하는 기존 범여권 정당을 버리고 듣보잡 신생정당을 들러리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철면피적 비례정당 추진행태를 사실상 비판없이 단순 인용적 보도.

[3.16] 28건

(1) [MBC여론조사] '미니 대선' 종료 이낙연 51.6% vs 황교안 33.2%

(2) [MBC여론조사] 광진을 '초박빙'...고민정 41.7%·오세훈 39.8%

☞ 선거전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권 후보가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코로나 기사를 밀어내고 톱기사로 보도하는 적나라한 정권 나팔수적 행태.

(3) "세월호 징하게 해 처먹는다"...차명진 공천 논란

☞ 여당 1위란 여론조사 특정 야당 후보자 1명을 굳이 끼워 넣어 과거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정치적 편파성을 노출. 코로나 기사를 능가할 비중도 없으려니와 지난 2월 27일 여당인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의 경선 승리 찬양 리포트와는 180도 표변한 편파적 보도.

(4) 與도 '불출마 의원' 꺾주기?...野 '김종인 영입' 무산

(5)~(11) 코로나 기사

(12) 검찰 맹공하며 사표..."특정세력 대통령에 비수"

☞ 최강욱의 비리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면죄부성·문대통령 옹호성 논조로 다룸.

(13) 2차례 연기 끝에...'조국 재판' 이번 주 시작

☞ 검찰 비판에 방점을 둔 편향적 앵커멘트

"(앵커멘트) 최강욱 비서관이든 조국 전 장관이든 이번 기소를 두고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14) [단독] 공소시효 끝나가는데...'장모' 의혹 뒤늦게 수사 착수

☞ 사흘전 한국경제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기사인데 뒤늦게 보도하면서 '허위성 단독' 머리를 붙여 보도하는 윤리성의 상실.

(15)~(28) 코로나 기사

[3.15] 17건

(1)~(15) 코로나 기사

(16) 민주 '비례 연합' 구체화...'공천 진통' 통합당

☞ 꼼수와 위선으로 비례정당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이 꼼수에 당한 다른 범여권 정당을 민주당의 시각으로 무시하는 정권나팔수적 보도.

[정참시] (정가 스케치 보도 코너)

(3.19) 1) '자매의 난' 진압...입당은 민주당 /

☞ 방점은 미래통합당 비난.

2) 코로나 비상! "세비라도 반납해라!"

(3.18) 1) 황교안이 계획한 "정상적 자매정당"?

☞ 야당대표 조롱

2) "성소수자 곤란" vs "그 발언이 곤란"

☞ 민주당 비판

(3.17) 1) 한선교는..."계획이 다 있었구나~"

☞ 야당의 비례정당만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적 행태는 다루지 않음.

2) 소방관 투입에도, 재발화한 '아빠찬스'

(3.16) 1) 민주 vs 정의...'비례 전쟁' 돌입?

☞ 기계적 균형을 취하면서 교묘히 정의당 비례1번후보 문제를 집중거론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옹호.

2) 황교안 나서달라더니..."TV도 나오지 마"

☞ 제1야당 공천불복 문제를 굳이 기사로 채택, 야당과 대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묘사 보도.

V. 문재인 정권수호의 화신 JTBC

1. '우한 코로나' 정부 책임은 감추고 종교차별 선동까지

▶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지정...감염병 첫 사례 (3.1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0176&pDate=20200315

○ [기자]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이 지역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능력만으론 수습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국가가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세우고, 복구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또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요금·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도 줄여줍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대구 신천지 교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 대구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뉴스룸> 이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구 신천지 교인은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지원해선 안 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 교인 일부가 적극적으로 확진검사에 응하지 않고 확산하는데 일정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코로나 발병은 결국 외부요인(중국)에서 온 것이고 신천지 신도도 정부가 돌봐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뉴스룸은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 확산 책임이 있다며 마치 정부가 지원해선 안 된다는 뉘앙스(논란이 예상된다는 표현)로 차별하는 보도를 했다. 언론이 특정 집단, 종교세력 자국민 차별을 선동한 셈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⑧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대구서 '폐렴증상' 17세 청소년 사망...직접 사인 촉각 (3.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0814&pDate=20200318

▶ [팩트체크] '가짜 음성' 의혹으로 '진단키트' 흔드는 주장, 진실은? (3.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0787&pDate=20200318

▶ 숨진 17세 고교생, 최종 '음성'...정부 "검사 일부 오류" (3.1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008&pDate=20200319

○ 폐렴 증상으로 숨진 17세 고교생의 코로나 감염 검사와 최종 음성 판정으로 나왔다는 뉴스를 이틀간에 걸쳐 보도했다. 이 소년은 모두 13번 검사에서 12번은 음성, 마지막 13번째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에서 양성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영

남대병원 검사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거라고 설명했고, 병원 측은 반발했다며 기계적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영남대병원에서 수많은 검사를 했고 오류가 없었는데도 이 소년 양성 논란 단 한건으로 서둘러 코로나 검사를 중단시키고 전문가들을 보내 실험실 환경 조사를 결정했다. 이 소년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다 감염, 악화돼 사망까지 이어진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JTBC는 이 소년이 어떻게 감염되어 사망했는지 추적해서, 정부 조치가 합당한지, 영남대병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19 감염을 제기했지만 질본이 최종 사인으로 음성판정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왜 서둘러 검사중단 조치를 내렸는지 심층보도를 했어야 했다. 또 이 소년이 병원구급차도 못 탄 사정 등도 확인해봐야 했다. (페렴 증세 보이던 17세 고등학생 사망 원인 놓고 '논란'-동아일보, [현장에서] "17세 코로나 우려한 정부, '오염' 던져 영남대병원 짓밟아"-중앙일보, 17세 소년은 왜 '골든아워' 놓쳤나...코로나에 밀린 일반 환자-머니투데이 등 다른 언론보도와 질적으로 차이가 났다. 정부가 실시한 마스크 5부제로 인해 마스크를 사려고 비오는 날 한 시간 줄을 섰다는 이 소년의 사망원인이 코로나로 드러날 것을 우려한 정부를 미리 염려한 JTBC의 은폐성 보도로 볼 수 있다. 보도해야 할 것을 보도하지 않는 것도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편파보도, 왜곡보도에 해당한다.

2. '친문본색' 노골화, '윤석열 때리기' 과잉보도

- ▶ 윤석열 장모, 곧 검찰 소환...'은행잔고 위조' 의혹 (3.1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0614&pDate=20200317

- ▶ '윤석열 총장 장모' 검찰 불출석...잔고증명 위조 의혹 (3.18)
- ▶ "'사위 윤석열' 강조하며 투자 요청, 18억 떼여" vs "우리가 피해자" (3.18)
- ▶ '윤 총장 장모 동업자' 출석..."잔고증명서, 나도 속아" (3.19)
- ▶ 잔고증명서 위조·사용시점 보는 경찰...시효 늦춰지나 (3.19)
- ▶ '윤석열 장모' 동업자 "참고인 아닌 피의자 조사받아" (3.2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1192&pDate=20200320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최씨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2013년,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통장에 350억 원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윤석열 장모, 곧 검찰

소환...'은행잔고 위조' 의혹).

○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에 대한 진정과 고발이 검찰과 경찰에 이어졌습니다. 최씨는 오늘(18일)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알려졌지만, 현장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윤석열 총장 장모' 검찰 불출석...잔고증명 위조 의혹).

○ [앵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19일)는 최씨의 동업자였던 안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안씨는 조사 후에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언론사가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장모) 관련 사건을 나흘 연속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잔고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피해자 가해자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인데, <뉴스룸>은 윤석열 총장 장인 동업자 안모씨 주장을 부각시키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이 사건이 4일 연속 보도할 사건인지도 의문이 들고, 이런 종류의 사회성 사건을 4일 연속으로 보도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그러나 <뉴스룸>은 이 이슈를 사흘 집중적으로 보도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조국 사태로 친문세력이 윤총장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뉴스룸>이 이런 과잉 보도로 노골적인 친문, 친조국 방송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정한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불공정 방송이다. 윤석열 장모 사건을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어 편성하는 것은 공정성 위반 소지가 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 말씀]

※참고 : 이 보고서는 미디어연대의 분석자료입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시되, 인용시 '미디어연대 자료'임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저희 미디어연대와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는 미디어연대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은 미디어연대 홈페이지(www.medianetwork.kr)에서 '후원하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